

KFAM 하이라이트



할로윈 이벤트

올해 할로윈은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PVSA 봉사자 맥스와 조이 마켓 클럽 회원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해 할로윈 간식 꾸러미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Ascend Los Angeles: 세대를 잇는 영감 2025

Ascend LA의 초청으로 제니퍼 오 부소장이 기조연설 패널에 함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배우려는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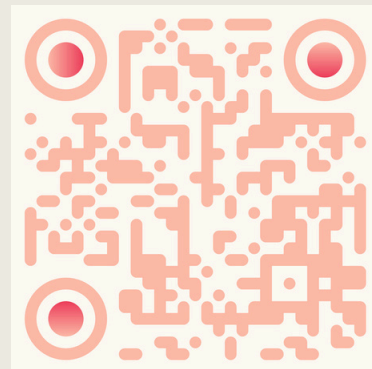


LABUBU GIVEAWAY

기부하고 참여하세요!

- ☀ 2025년 12월 2일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참여하세요!
- ☀ 자세한 방법은 KFAM 인스타그램 @kfamla 에서 확인해주세요!

GIVING
TUESDAY



KFAM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휴무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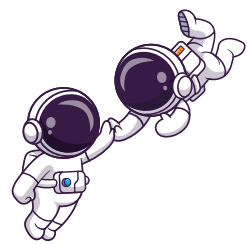
추수감사절 특별 나눔 행사

올해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아 KFAM은 농심과 함께 우리 커뮤니티에 따뜻함과 즐거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전했습니다! 농심에서는 시그니처 푸드트럭을 통해 라면과 스낵을 나누고, 선물 패키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가을 과학 캠프: 항공우주 어드벤처

KFAM은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와 협력해 가을 과학 캠프: 항공우주 어드벤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며 우주를 탐구하고, 만들고, 더 넓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래 혁신가들을 영감하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버전을 확인해 보세요!

KFAM은 입양 및 위탁 서비스, 아동·성인 웰니스 프로그램, 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수천 명의 아동, 가족, 그리고 개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뜻한 연휴 되세요

Coming Soon!

우리 커뮤니티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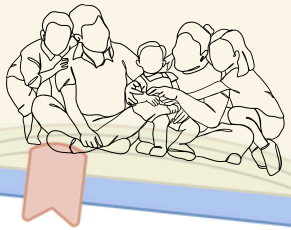
12월에 홀리데이 팝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FAM에서 예쁜 연말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 분위기로 꾸미고,
카메라 세팅까지 모두 준비할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AFFI 입양 및 위탁가정

11월은
입양 인식의
달입니다.



유튜브 채널 @KFAMLATV 에서 AFFI와 입양에 관한
라이브 방송을 확인해 보세요!

위탁아동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AFFI 가족들과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www.kfamla.org/donate
에서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심리 상담



다음 세대의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응원하며...

심리상담 인턴 멜로디가 KFAM에서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
다. 지난 1년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뤄낸 모든 성과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돌봄을 더 많은 분들에게

KFAM 심리 상담 부서는 연세 Health & Wellness Expo에 참여해,
행사에 방문한 85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양한 지원을 소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11월은 입양 인식의 달입니다.

KFAM은 AFFI 부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영원한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언젠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고, 길을 건널 때 작은 손을 꼭 잡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없는 병원 방문,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처들을 겪은 끝에,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단 한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원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생명에게 마음을 쏟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입양 이야기를 시작했고, 가족이 없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결심한 뒤 저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AFFI를 발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제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 안전, 그리고 아이가 진심으로 이해받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꼭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탁 양육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한 살배기 여자아이. 영양실조. 상처 투성이. 안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

담당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가벼웠습니다. 옷 너머로 뼈가 느껴졌고, 손목에는 담뱃불 흔적 같은 둥근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어린 나이에 이미 삶의 고통을 배워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를 더 꼭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우리 둘을 안아 주었고, 우리는 셋이서 그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다시는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아이는 거의 먹지 않아서, 한 손가락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말소리도 거의 없어서, 아이가 처음으로 정말 환하게 웃었을 때는 마치 어둠 속에서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어려워할 때는 아내와 제가 번갈아 안아 재우며 작게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저희 품에서 편안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불살이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붙고, 눈에는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곧 뒷마당을 뛰어다니고, 비눗방울을 쫓으며 넘어졌다가도 웃으며 안겨오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굶은 무릎 상처, 생일 케이크, 잠자리 동화 한 편이 우리가 함께 채워 가는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강하고, 축구를 하며 눈을 반짝이는 아이. 경기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며 얼굴을 붉히고 집에 들어오는 아이.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그냥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환하게 웃는 아이가, 한때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몸을 떨던 그 아이와 같은 아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양하던 날, 그녀는 밝은 노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목이 메어서 바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눕히자 그녀는 운동장에서 짓던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평생 제 딸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언젠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폭력피해자 지원



She's Club, 내년을 위한 준비와 함께 올해 시즌 마무리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열린 대화를 나누고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회원들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을 높여갈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2일간의 리트릿: 가정폭력 사례 워크숍 & 힐링 아트 세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상황들을 함께 논의하며, 생존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힐링 서예 세션을 통해 각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성 영락교회 아웃리치

GBV 김선희 디렉터와 권로렌 슈퍼바이저가 나성영락교회에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KFAM의 다국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안내부스를 운영하며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퍼스트 리스폰더 네트워크 구축

이번 가을 진행된 40시간 가정폭력 애드보킷(Advocate) 교육에는 목회자, 사회복지·상담 전공 학생,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여했습니다.

KFAM의 GBV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애드보킷(Advocate)을 양성하고, 한인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